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ACA-8) 참관기(Ⅱ)

Report on the Eigh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오근석 / 본협회 국제위원
by O Kun-Sok

제8차 아시아건축사대회(Eigh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및 학생잼버리대회(A RCASIA Students Jamboree)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차기 아카시아 포럼 개최지 선정권이 포함돼 있어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당초 지난 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9차 포럼에서 타회원국들이 차기 제10회 포럼을 한국이 유치할 것을 권유했었으나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돼 이를 유보한 채 금번 대회까지 오게 되었다. 하지만 신임 이의구 회장은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건축인들의 국제학술행사인 아카시아 포럼을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건축문화의 해를 더욱 빛내고 아울러 건축인의 위상을 높이고자 차기 아카시아 포럼 유치를 강력히 피력하였다. 따라서 우리대표단은 이런 소임을 가지고 장도에 올랐다.

협회 대표단 및 참관단 그리고 학생대표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우리 일행은 아카시아대회 행사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을 준비해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그 동안 바쁘게 진행하던 사무실 업무를 뒤로하고, 기내에서 아카시아 리포트며 각종 회의자료 등을 검토하다보니 비행기는 어느덧 첫 기착지인 싱가포르 Changi 공항에 도착했다. 스리랑카 콜롬보행 항공편이 밤10시에 출발할 예정이어서 출발시간까지는 아직 7~8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으므로 우리 일행은 공항측의 안내를 받아 'Free City Tour'를 신청했다. 이 투어는 아마도 항공사측에서 Transfer 승객을 위해 마련한 것인 듯 했는데 약 4시간 동안 싱가포르 시내의 현대건축물을 돌아보고 페리(Ferry)편으로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었다. 여행객이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차창너머로 고층빌딩군을 이룬 현대도시를 둘러볼 수 있게한 좋은 배려라고 생각됐다.

콜롬보행 항공편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 대표단은 홍콩 대표, 싱가포르 대표 및 필리핀 대표단과 조우해 서로 그동안의 안부와 소식을 물으며 항공기에 탑승했다. 약 세시간반쯤 지나자 콜롬보 상공에 도달하고 있다는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다. 하늘에서 본 콜롬보 시내의 야경은 간혹 가로등 불빛만 반짝이는 적막한 도시로 보였다.

공항에 내리니 비가 부슬부슬 내려 졸음을 쏘아 주었다. 공항 로비에는 아카시아 대회 집행위원들이 우리 대표단을 반기기 위해 맞이하였다. 콜롬보공항에서 학생대표단을 잼보리 대회장으로 먼저 출발시키고 난후 자료 등을 챙겨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하니 어느덧 새벽 3시가 넘고 있었다.

11월 11일

Council Meeting에 참석했다. 전체 15개 회원국중 올해는 몽고대표단과 마카오대표단이 불참했다. 대회장에는 각국 대표들과 옵저버 그리고 준비위원 등 약 1백여명이 운집해 있었다. 식순에 따라 Surath 아카시아 회장의 인사말 후 UIA임원 및 AIA회장의 축사 그리고 스리랑카 건설성 장관의 대회경축사가 있었으며 곧이어 각국 대표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한편 매스컴에서는 본 대회의 의의와 행사 내용을 자세히 취재해 갔다. 오후 Council Meeting에서는 Country Report 발표가 시작됐다. 우리대표는 대한건축사협회기구 조직표 소개, 이의구 신임회장 선출과 한·몽고 건축사 교류, 건축면허 상호인증 협약 준비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각 국별 보고가 끝난후에 기타사항으로 설계비 현실화 문제며 건축가들의 위상제고 등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교육위원회(ACAE) 회의에는 김지덕위원과 유건위원이 참석했다. 저녁 만찬에서 우리 대표단은 '99년 제10차 아카시아 Forum의 서울 유치를 위해 각국 대표단과 만나 전후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많은 회원국들이 한국 대표단에 호의를 보내주었으나 아직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11월 12일

대회 둘째날에는 전 아카시아대회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와 함께 각 국가별 현안문제를 토의하였다. 이중 건축면허 상호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건축설계시장을 급속히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며 각 나라마다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바탕이 다른만큼 건축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그 시대별로 이루어지는 문화를 바탕으로 건축문화가 발전 계승되어야지 선진국의 건축문화 전수 또는 식민화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후 회의에서는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개최지 선정 건물 다루었다. 개최 유치국으로는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이정근 국제위원장은 미리 준비해간 자료들을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하고 한국이 포럼을 유치하려는 당위성과 준비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많은 노력 덕에 차기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됐다. 이어서 제9차 아카시아대회(ACA) 개최지 선정건물 다루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대회 유치를 위해 접전을 벌였으나 표결 결과 차기 개최지로 말레이시아가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차기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대표인 Mr. P Kasi가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에 선임됐다. 또한 금년에는 그동안 몇 차례 옮겨버 자격으로 참석했던 베트남 건축사협회가 아카시아 정회원회에 등록돼 아낌없는 축하박수를 받았다.

이날 저녁 만찬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차기 포럼을 유치한 한국 대표들에게 많은 덕담을 보내주었으며 우리는 이에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각국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11월 13일, 14일

Session별 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은 갖는 Forum시간은 13일은 발표자 소개와 산업사회에서의 건축가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고, 14일은 건축사를 위한 경영학 및 건축사 교육혁신을 요지로운 주제발표가 있었다.(주제발표 내용은 지난해 이정근 국제위원장 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11월 15일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전 회원들을 위한 'Official Tour'를 준비했다. 2대의 버스에 동승한 대표단은 스리랑카 건축사협회를 방문하였다. 협회는 막 개보수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원래 자체건물이 없었으나 이번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유치하면서 정부로부터 대여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건

물은 안내실, 자료실, 서고 등이 1층에 위치하고 2층에는 회장실, 회의실, 사무실이, 3, 4층에는 3~4개의 Class Room이, 5층에는 강당이 있었다.

이내 버스는 인도양의 해안선을 따라 전원주택지와 소도시를 몇 곳을 지나 섬 남부에 위치한 대저택에 다달았다. 스리랑카의 저명한 건축가와 Jeffery Bauwer 소유의 저택이었다. 그는 원래 법률가(Lawyer)였으나 그 부지에 조그마한 참고건물을 설계하고 신축한 것이 어는 원로 건축가의 눈에 띄어 그 길로 건축수업을 받은 후 대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작은 언덕 부지에 공간의 연계성을 활용해 잘 표현하였으며 본채와 작업실간의 외부통로 연계성, 앞뜰과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까지 갖춘 한마디로 언덕위의 저택이었다. 이날 두번째 방문지는 건축가 Bauwer의 맨션(Mansion) 작품을 견학하였다. 인도양이 펼쳐지는 부지에 2~3층으로 구성된 이 맨션은 주거개념과 공동의 장 그리고 비좁은 듯한 연결통로가 복합적으로 잘 구성돼 있고, 건물 외벽색채는 열대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듯 흰색 페인트로 단장해 야자나무에 둘러싸인 저택이 한층 고풍스러워 보였다. 콜롬보로 돌아오는 길에 'TAJ Exotica 호텔' 등 Bauwer의 최근 호텔 작품을 견학하였다. 평활한 대지위에 대자연과 물을 건물의 곳곳에 도입하여 매어드급호텔을 구상했고 입면 파사드(Facade)는 격자 패턴을 도입하여 음영의 효과를 심분활용한 작품으로 방문자들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

건축가 Bauwer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건축가들도 그들 못지않게 작품성이나 능력면에서 세계적임에도 아직 국제적 명성이 높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봤다. 건축인들이 보다 단결된 면모를 보여주고 내적으로는 작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외적으로는 국제적 명성을 얻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낸다면 세계속의 한국 건축가가 탄생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이번 제8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통해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우선 제10회 아카시아 Forum을 서울로 유치했으며, 아카시아 건축상 산업시설부문에서 양기주망 건축사 사무소 최승원 회원의 작품인 '원실업 천안공장'이 당당히 금상을 수상했고, 학생잡버리대회에 학생대표로 참가한 강효진양이 'Architect for the Asian Century'를 주제로한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이 모두가 한국건축인의 자랑이요, 본인들이 각각의 작품에 혼신의 힘과 정열을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이자 우리 협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이룩된 쾌거라 본다. 또한 이는 우리 건축사들의 위상을 한단계 드높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